

KT, 아마존과 AI·미디어 ‘글로벌 동맹’... “디지코 박차”

(디지털플랫폼기업)

해외 기업과 첫 파트너십 계약
AI 솔루션·기술 공동 개발하고
클라우드 사업 협력해 경쟁력 제고

디지털 플랫폼 기업 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KT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아마존웹서비스와 손잡는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와 미디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KT는 아마존웹서비스(이하 AWS)와 함께 AI, 클라우드, 미디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계약(SCA, Strategic Collabor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력계약 체결은 해외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첫 행보다. KT는 AI원팀 등을 통해 현대중공업, LG전자, 카이스트, 서울대 등 국내 우수 기업 및 연구 기관들과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KT AICC-아마존 커넥트 연계 B2B 서비스 준비

우선 양사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진행한다. B2C, B2B를 아우르는 AI 솔루션과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해 양사의 AI 서비스 영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작은 사진)구현모 KT 대표, 서울 종로구 KT 이스트 사옥.

/뉴시스

KT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고객 콜센터 운영 노하우에 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AI 컨택 센터(AICC) 서비스를 국내 시장에 내놓았다. 이를 기반으로 AWS의 옴니채널(다채널) 클라우드 컨택센터 서비스 ‘아마존 커넥트’와 연계한 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양사는 KT IDC 및 클라우드와 AWS를 연계한 최적의 클라우드 및 통합 관리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터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본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한다

는 방침이다.

KT와 AWS의 클라우드 사업 협력은 국내외를 아우르는 기업 고객들에게 사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기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령 KT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던 국내 기업이 해외로 사업영역을 넓히는 경우 AWS 클라우드 솔루션을 접목하면 국내외 시장환경에 적합한 다중 호환 모드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반대로 AWS 클라우드를 도입한 해외 사업자가 국내시장에 진출할 경우 KT의 클라우드를 적용해 용이하게 한국에 맞는 사업환경 구축이

가능하다.

아울러 KT는 AWS 파트너 네트워크에 합류해 KT와 AWS의 서비스를 통합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양사 TF 구성해 미디어 협력도 모색
양사는 미디어 사업 협력도 모색한다. 협력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AWS 아시아태평양 및 일본 지역 부사장 필 데이비스는 “KT의 오랜 노하우와 역량 위에 AWS가 제공하는 머신러닝, 아마존 커넥트, IoT 등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기술을 결합해 많은 기업들이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현모 KT 대표는 “KT는 고객의 삶의 변화와 다른 산업의 혁신을 리딩하는 디지털 혁신을 전담으로 내세우며 다양한 외부 협력을 진행하는 가운데 글로벌 IT기업인 AWS와도 전략적 협력을 체결을 통해 의미 있는 사업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KT의 기업가치를 높이고 디지코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KT 직원들이 하이퍼스케일 AI 센터가 구축된 IDC 내에서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KT ‘하이퍼스케일AI’ 출시

KT는 인공지능(AI) 연구 및 상용화 인프라 환경과 운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KT 하이퍼스케일 AI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KT 하이퍼스케일 AI 서비스는 AI 컴퓨팅 파워, 개발자 툴킷, 전문가그룹의 최적화 및 컨설팅, 데이터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AI 모델 학습, 추론에 최적화된 IPU를 기반으로 필요한 만큼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김나인 기자

“경비처리·기안, 카톡처럼 쉽게 보내세요”

카카오엔터-SAP 업무협약 체결
AI·업무봇 등 신기술 글로벌 협력
카카오워크에 ‘경비처리 봇’ 탑재

‘SAP이성열 SAP 코리아 대표이사, 백상엽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가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선도 기업 SAP와 손잡고 인공지능(AI), 업무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사업 협력에 나선다.

양사는 9일 SAP의 최대 연례 IT 컨퍼런스 ‘SAP 사파이어 나우(SAP SAPHIRE NOW)’에서 백상엽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이성열 SAP 코리아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카카오워크’를 중심으로 한 향후 협력 계획을 발표했다.

SAP와 비즈니스테크놀로지플랫폼(BTP) 협약을 맺은 기업은 국내에서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처음이며, SAP는 미국 기업과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양사는 우선 종합 업무 플랫폼 ‘카카오워크’와 SAP의 솔루션을 연계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9일 SAP의 최대 연례 IT 컨퍼런스인 ‘SAP 사파이어 나우(SAP SAPHIRE NOW)’에서 이성열 SAP 코리아 대표(왼쪽), 백상엽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이미 지난 2월 SAP와 협력해 국내 협업을 최초로 SAP BTP를 카카오워크에 탑재해 국내 기업 인프라에 최적화한 결제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SAPBTP 기반 다양한 카카오워크 봇을 출시해, 알림, 문의, 구매, 결제, 영업관리 등 업무를 간편히 처리할 수 있게 돕는다.

카카오워크 내 ‘경비처리 봇’을 활용하면 법인 카드 사용 알림부터 결제가

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직원이 법인 카드로 결제하면 알림봇이 자동으로 사용 알림 메시지를 전송해준다. 메시지에 결제 요청 정보 및 결제 내용을 입력하면 결제권자에게 자동 알림이 가며, 결제권자가 상세 내역 확인 후 승인·반려 처리를 하면 경비 처리가 완료된다.

또 향후 영업, 구매, 생산 관리 시스템 등 SAP의 다양한 업무 시스템을 카카오워크와 연계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아무리 좋은 터치보다 음성인식이 1.6배 빠르다는 MIT 논문이 발표됐다”며 “음성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는 만큼, SAP 기간제 시스템에서 음성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맡아 하고 카카오워크에도 음성 인터페이스를 탑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열 대표는 “각 기업에 특화된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해왔으며, 지난 4월 1일 국내 데이터센터를 오픈해 국내에서 클라우드 전환이 더 원활해졌다”며 “출범 1년 만에 1조원 이상 기업 가치를 갖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협력해 비대면 업무 환경에서 기업이 비즈니스를 잘 운영하도록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한국타이어, 日서 기술력·프리미엄 인정

혼다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일본 시장에서 글로벌 최상위 기술력과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입증했다.

일본은 글로벌 타이어 순위 1위인 브

릿지스톤과 스미모토 등 경쟁한 업체가 자리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일본의 자동차 판매량 2위 기업인 혼다의 하이브리드 모델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일본 대표 완성차 기업 혼다의 일본 내수용 ‘2021 혼다 베젤’의

하이브리드 모델에 ‘키너지 에코2’를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한다 9일 밝혔다.

글로벌 출시 모델명 HR-V로 알려진 콤팩트 크로스오버 SUV 모델 ‘2021 혼다 베젤’은 감각적인 디자인과 경쾌한 주행 성능으로 오랜 기간 동안 스테디셀러로 사랑받아 왔으며, 올해 4월 3세대 안전변경 모델로 새롭게 출시되었다.

/양성운 기자

삼성중, ‘탄소제로’ 해양 원전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공동연구 맞춘

삼성중공업이 ‘탄소 제로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해양 원전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삼성중공업은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연구개발 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과 ‘해양 용융원자로(MSR) 개발 및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진택 삼성중공업 사장과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상호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중공업은 미래 신사업 확장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MS

R 기반 부유식 원자력발전 플랜트 및 원자력추진선박 시장을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에는 ▲MSR 요소 기술 및 열교환기 등 관련 기자재 개발 ▲해양 원자력 제품 설계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성능 검증, 경제성 평가 등을 위한 공동 연구 방안이 담겼다.

MSR은 최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제로 에너지원으로 관심이 높은 소형모듈원자로의 일종으로 핵연료의 사용 주기가 20년 이상으로 선박 수명 주기와 같아 한 번 탑재 후 교체가 필요 없으며 원자로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 선박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코트라, 청년들과 ESG 경제외교 만든다

G7정상회의의 계기 ‘청년 포럼’ 개최

KOTRA(코트라)가 고려대학교와 손을 잡고 주요 7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10일 ‘G7 청년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과 영국에 거주 중인 우리 청년 100여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공유가치를 안내하고 취업 역량 제고를 돕는다.

오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는 2008년 훗카이도 G8과 2009년 라퀼라 G8 정상회의 이래 우리나라가 3회째 G7 게스트 국가로 참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대면다자 정상회의에서는 ▲전 세계의 코로나19 극복 ▲자유와 공정 무역을 통한 미래 번영 ▲기후변화 대

응과 생물 다양성 보존 ▲글로벌 공유 가치 추구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G7 청년 포럼에서는 이러한 정상회의의 어젠다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트렌드를 심도 있게 다룬다.

외교관 출신인 김창범 전략문화연구원 고문과 유승권 이노소셜랩 이사가 연사로 나서 각각 ‘G7 개요와 전 세계 주요 정책 동향’과 ‘ESG 최신 트렌드’에 대해 강연을 펼친다. 아울러 주최국인 영국과의 실시간 중계를 통해 첨단 소재 엔지니어링 기업 ‘버차리안’의 ESG 경영 사례도 소개된다. /양성운 기자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